2019학년도 하계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벤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19. 08. 05. ~ 08. 25.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대학위치가 다운타운으로 빠지기 좋은 위치에 있었고 대학규모도 커서 학교생활 하는 것에 굉장히 만족했다. 그러나 2~3주쯤에 카페테리아 식탁, 의자를 다 치워서 점심을 먹을 때, 불편함이 컸고 매점도 잠겨있어서 간식이나 식사를 사먹기에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처음 수업을 할 때 알려주신 보건실을 사용하려했으나 보건실을 가기 위한 길마저 잠겨있어서 생활하는데 조금 불편했다. 하지만 교실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 주시기 위해 노력해주신 관계자 분들, 질문을 했을 때, 대답해주시고 그 장소까지 직접 데려다 주신 학교 학생분들 덕분에 학교생활이 편하고 재미있었다.
수업	교재대신 바인더를 받아 바인더에 있는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교재에는 총 3개의 챕터가 있는데 일주일마다 한 챕터씩 끝냈습니다. 4명씩 4개의 그룹을 이루어서 4명이서 토론하거나 전학생이 다 모여 듣고 발표하는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강사님은 수업준비를 해오셨고 준비한 수업은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발표 할 때도 학생들의 발음 하나하나를 다 체크해주시고 모의발표를 들어주는 등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쏟아주셨습니다.
필드트립	필드트립은 총 4가지가 준비되어있었다. 제일먼저 카약을 했는데 카약이 재미있었으나 너무 카약만 해서 주변 배경을 둘러볼 틈이 없어서 아쉬웠다. 카약 할 때 긴팔보단 팔토시를 추천하고 긴바지보단 반바지를 추천한다. 두 번째로는 밴쿠버 디스커버리로 걸어서 밴쿠버를 돌아보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말 하루 종일 걸어다녀서 피곤한 하루였었다. 전체적으로 걷는 것 위주라서 추가비용은 따로 필요없었다. 세 번째로 밴쿠버 아쿠아리움을 갔는데 새롭고 귀여운 동물들이 많아서 재밌었다. 네 번째로 밴쿠버 뮤지엄을 갔다. 밴쿠버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잘 기록되어있고 잘 전시되어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휘슬러산을 갔다 왔다. 지금까지의 체험 중 가장 먼 곳에 위치해있지만 가장 재미있었고 너무나도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휘슬러가는 당일 날 비가 와서 휘슬러 정상에는 5도까지 떨어져 정말 추웠지만 추위를 이기는 너무 예쁜 풍경들을 보고 찍고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휘슬러 만이 아닌 휘슬러 산 밑 빌리지, 학교로 돌아가던 중, 쉼터를 보아서 너무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 좋았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는 우리나라랑 좀 많이 달랐다. 한국은 덥고 습하면 캐나다는 덥다, 춥다 라는 느낌이 분명하게 나뉘어집니다. 햇빛으로 가면 덥지만 그늘로 가면 선선해 야외활동하기 좋은 기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가 뜨고 안 뜨고의 일교차가 커서 감기 걸리기 좋아 옷 입는 것에 유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	캐나다는 전체적으로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밴쿠버는 밖에서 자도 얼어 죽지 않는 좋은 기후를 갖고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 노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노숙자들은 다운타운이나 노숙자 거리 근처에만 자주 띄고 학교주변이나 집주변에는 보이지 않아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숙소	제 홈스테이는 정말 자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샤워시간 자유, 통금자유, 식사제공+도시락제공 뿐 만 아니라 빨래와 청소를 홈맘이 직접 해 주셨습니다. 식사 또한 저녁에는 밥으로 주셨고, 저를 배려해 신라면을 사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한 거와는 달리 홈스테이에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식사	학교식당 (ㅇ) 외부식당 ( ) 기타 ( ) 점심은 주로 카페테리아에서 홈맘이 싸주신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었습니다. 도시락 또한 제가 먹고 싶은 것들을 싸 주셔서 남기지 않고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	집에서 다운타운까지 나가는데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교통편은 정말 편리했습니다. 열차배차시간이 짧아서 앞에 열차를 놓쳐도 괜찮을 만큼 자주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버스배차현황이 한국처럼 게시되어있지 않아 버스이용에 대해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식비	500,000	
쇼핑	270,000	
기념품	100,000	
자잘한 간식	130.000	
합계	1,000,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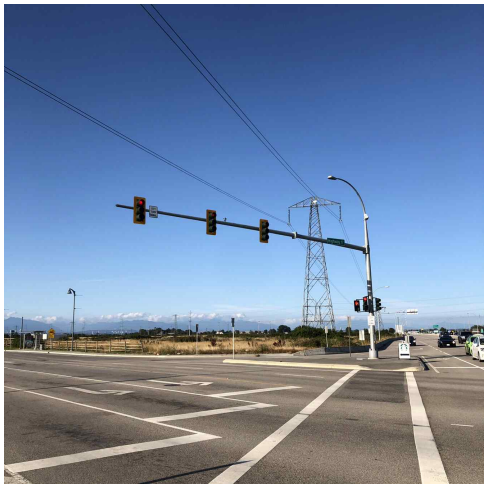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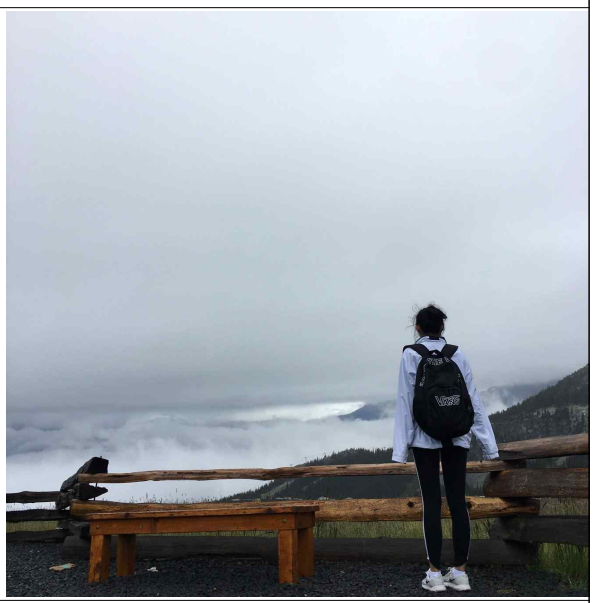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캐나다는 기후차이가 심하니 가디건 조금 두꺼운 후드집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휘슬러를 가게 된다면 두툼한 외투 하나, 긴팔 티, 운동화가 필수입니다!! 저는 잘 맞았지만 매일같이 샌드위치, 빵 먹는 것을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스턴트 한식을 조금 가져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처음 캐나다 갈 때, 설레기보단 걱정이 앞섰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것, 룸메이트 걱정, 음식걱정 등이 있었으나 첫날 홈스테이에서 엄마와 대화하고 같이 밥을 먹었을 때, 너무 크게 걱정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홈스테이는 남과 함께 사는 것 이지만 집에 들어온 순간 남이 아닌 한 가족임을 느꼈습니다. 캐나다를 돌아다니면서 느낀 것은 한국과 다르게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 입니다. 분리 수거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쓰레기줍기 등, 환경보호의 관한 활동이 빈번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성소수자들이 떳떳하게 돌아 다녀도 누구도 욕하지 않고, 패션의 자유가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존중해주는 나라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술에 대해 관대하지 않고 안전에 대한 법률이 강하게 적용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적용되고 있는 법률 중 몇 개는 우리나라에도 적용되면 좋겠다하는 부분이 있어 한국과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캐나다에 대해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교환학생을 준비해 캐나다를 한 번 더 갈 것이라는 결심과 함께 캐나다에서 배운 좋은 습관들을 잊지 않고 지속해 나가고 싶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필수)

집앞공원에서 놀다가 현지인과 한장		디스커버리 미션-외국인과 사진찍기

		
나이트마켓 입구		캐나다 최남단 델타지역
		
밴쿠버 뮤지엄 입구사진		휘슬러 전망대